

청년2부 1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

및 네팔 현지상황 보고

청년2부 1팀 김현진

네팔선교 정보정리 重要!
2016. 송명상 장로

- 들어가는 말

저는 2016년 9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네팔 고르카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김현진 집사입니다(청년2부, 1팀). 네팔 단기 선교는 이번이 2번째 선교이며, 교회를 통해 총 5번의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네팔은 복음을 전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나누어 주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시, 체포 및 구금(외국인의 경우 추방)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금번 선교 시, 같은 날 네팔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던 교구팀은 나라가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팀은 교회의 특별한 염려와 중보 속에 출발하여 무사히 사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영국에서 함께 직장생활 하던 *네팔인 친구가 귀국 후 목사가 되어, 금번 사역기간 동안 동행하며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네팔 크리스천들이 처한 상황 및 사역에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를 교회와 나누어 향후 교회가 네팔 단기선교방향을 설정하며, 계획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족하지만 간단한 보고서를 선교위원회에 제출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 집사 드림.

* 도움을 준 네팔 현지 목사는 Dev C Katuwal 입니다.

저와는 2008년 영국에서 1년 정도 함께 근무 하였습니다. Dev 목사는 네팔 Tribhuvan university를 졸업하였고, Nepal Bible Collage 졸업 후, 카드만두에서 Glorious Mission Church 담임하며, Hope for Children 이라는 고아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차

1. 고르카 단기선교 보고
2. 고르카 Satipipal 교회 현황
3. 네팔 현지 기독교 상황
4. 향후 네팔선교 방향

1. 고르카 지역 단기선교 보고

(1) 사역시기

2016년 9월 10일 ~ 2016년 9월 17일

(2) 지역설명

고르카(Gorkha)는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5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지방도시 입니다.

(3) 사역내용

노방전도 등의 대외적 복음전파 사역이 어려운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13교구를 통해 후원을 받은 Satipal 교회와 연합하여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 기도회, 어린이 사역 및 심방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역인 만큼 출발 전, 사역계획을 현지 담임목사인 Chandika 목사님과 의논하여 준비하였습니다. Chandika목사님이 영어를 못하시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한 Dev목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조율을 하였습니다.

11일 - 현지도착, 사역일정 및 구체사항 논의

12일 - 말씀집회 및 심방

13일 - 교회 내 어린이 사역

14일 - 기도집회

15일 - Kathmandu 로 이동

우리교회가 진행하던 기존의 사역(노방전도, 축호전도)과 달리 현지 교회와 연합으로만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진행하였습니다.

① 말씀집회와 기도집회 경우, 현지교회의 예배 순서에 맞추어 사역하였습니다.

② 현지교회와 사역방향 조율 당시, 말씀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지도를 맡으신 안수집사님께서 영어로 준비하셨고, 이를 Dev 목사님을 통해 네팔어로 통역하여 성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③ 인형극(돌아온탕자), 구원팔찌 만들기 등의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역후기

① 말씀에 기초한 설교 말씀을 통해 현지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와 풍습이 다르지만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② 선교팀이 방문하는 시기가 현지 교회에게는 특별집회 기간이 되어 온 성도와 선교팀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③ 네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현지 교회만의 특별한 기도제목(건축, 환우 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진행 내용은 서기보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1. Satipipal 교회 현황

(1) 교회소개

Satipipal 교회는 Chandika 목사님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수는 약 50~60내외로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는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기존 교회가 무너져 현재는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교회의 복구헌금도 있었던 Satipipal 교회는 현재 새 교회를 건축 중이며 현재 60~70% 정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곧 시작되는 힌두교절기와 재정문제가 겹쳐져 완공시기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 교회 기도제목

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되고 성장하는 교회.

: 척박한 상황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온 교인들이 하나되어,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② 교회 건축

: 진행하고 있는 교회 건축이 속히 마무리 되길 온 성도들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문제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③ 환우를 위한 기도

: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3) 교회 건축에 따른 재정상황

여러 성도와 물질적인 헌신과 우리교회의 선교헌금도 더해져 교회건축이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월 28일경 입당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공정이 60~70% 정도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특히 재정문제에 있어 100,000루피(한화 1천만원 정도)의 고리의 대출금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셔서 아래의 표로 붙여드립니다.)

<교회 건축에 따른 비용정산 관련>

비용	Npr	KRW	Fund	Npr	KRW
20mm 철근	52,632	544,128	한국(중현교회 포함)	840,800	8,692,481
16mm 철근	175,667	1,816,106	고르카내 사회시설 기부금	270,377	2,795,251
12mm 철근	153,689	1,588,890	ICM		
8mm 철근	61,323	633,978	교회 자체 건축헌금	446,600	4,617,105
와이어	6,838	70,694	고르카내 타교회 지원금	16,500	170,583
시멘트 424포대	368,880	3,813,609	기부금	25,000	258,459
모래	175,000	1,809,211	1.은행대출 (이자 16%)	600,000	6,203,008
자갈	205,900	2,128,665	2.대부 (이자 24%)	400,000	4,135,338
block 750	35,250	364,427			
문술,문반비	22,710	234,784			
창문,문 프레임	62,740	648,628			
grill iron	50,000	516,917			
Stone 14트럭x4500	63,000	651,316			
벽돌 (3,500px X 16.5npr)	57,750	597,039			
시공자 인건비	169,200	1,749,248			
(188일 x 900npr)					
도우마 인건비	112,000	1,157,895			
(160일x700npr)					
기타시공 인건비	15,000	155,075			
30일x500npr					
바닥 시멘트 작업 인건비	193,500	2,000,470			
지붕 시멘트 작업 인건비	215,000	2,222,744			
근로자 식대	65,143	673,471			
작업드구 구입	22,555	233,181			
드로작업(드로->교회)	315,500	3,261,748			
Total	2,599,277	26,872,225	Total	2,599,277	26,872,225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의 육박하는 이자인데, 특히 개인(힌두교인)에게 빌린 돈은, 오히려 교회건축을 완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3. 네팔 기독교 상황

(1) 현지 정치, 종교상황

비교적 선교에 어려움이 없었던 네팔 상황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이유에 있습니다.

본래 힌두교를 국교로 하는 왕정이었으나, 공화정으로 변화되면서 개헌을 통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2008년). 이를 통해 기독교 인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오히려 힌두교 강경주의자인 부총리(카말타파)와 주요 정당의 지도자들을 자극하였고, 힌두교 강경주의자들의 주도로 2015년 새로운 헌법(26조 3항)을 제정하여 한 개인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힌두교를 국교로 하던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항(26조 3항)을 근거로 기독교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정치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① 기독교를 공공연히 공격함으로써, 기독교의 가파른 성장을 억제하고, 기존 힌두정치 세력을 결집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 개헌이 기독교계의 농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기독교가 금전적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개종시킨다는 유언비어 등을 퍼뜨려 적대감을 갖게 함.

② 수많은 신을 섬기는 힌두교를 다시 국교로 제정하여, 다시 힌두왕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음. 하지만 기독교의 세력이 커질수록 힌두왕정의 회귀가 어려워짐.

(현지 사역자들의 말에 따르면, 힌두교를 국교하는 왕정의 회귀를 꾀하는 세력과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공산당이 다시 손을 잡고 힌두교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2) 기독교인들의 상황

따라서 2015년 이후로 네팔의 크리스천들에게 아래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공공장소 등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배포 및 전도행위 등을 할 경우 체포

(타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 시킴)

- 네팔의 주요 정치 인사들은 힌두교 강경주의자로, 이들은 기독교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불교, 무슬림 등의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포교활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직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그 활동을 제한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캐나다인 의사가 네팔인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 최근 한국의 한 의료 선교팀도 전도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하고, 봉사활동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② 교회의 이름으로 땅을 구입할 수 없음.

- 따라서 교회들은 개인성도의 이름이나, 교회를 사업자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역에 필요한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③ 정부는 기독교 NGO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 및 약화 시키고 있으며, 설교나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단체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설립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④ 공식적으로 성경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 내년부터 발행되는 교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기로 하였고, 1974년 세워진 바이블 소사이어티(Bible society)의 재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Bible 이라고 표시하여 출판하지 못하게 됩니다.

⑤ 정부는 올해부터 크리스마스를 국경일에서 제외 시켰고, 주요 국가 시험일정들을 성탄절에 배치하였습니다.

⑥ 외국 선교사들의 비자 갱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⑦ 기독교 단체의 은행계좌를 감시하고 외국 송금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고아원 같은 시설에 있어서는 법을 더 엄격히 적용합니다.

4. 향후 네팔 선교방향

(1) 현지 사역자들의 조언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Dev 목사를 비롯하여, 일부 현지인 사역자와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와 같은 외국 교회와 단체들이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물어보았고, 네팔 선교에 대한 몇가지 조언을 아래와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참고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① 기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첫번째 부탁은 네팔 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취할 수도, 해할 수도 없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② 현지 네팔교회를 통한 선교활동

예배나 기도회 같은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와 말씀사역 또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사역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하였습니다.

③ 현지 네팔교회를 활용한 사회사업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압박하는 형국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진 이후, 부패하고 정쟁에 휩싸인 정치상황이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구제나 섬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믿지 않는 현지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현지 교회가 외국교회나 단체의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게 되며,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고아들을 돌보거나, 의식주에 도움을 주는 일 등)
- 실제로, Gorkha의 다른지역 교회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많은 구제와 사회사업(수도시설 및 도로포장 등)을 진행하였고, 지역사회 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 이 지역에서는 공개적인 전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우리교회의 향후 네팔 단기 선교

저희 팀은 현지 상황으로 인하여 기존의 선교방식과 달리 현지 교회와 연합한 방식으로 선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가 많이 어렵고, 힘들거란 걱정과 우려도 마음속에 있었지만, 현지 사역자들의 도움과 연합을 통해 지역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경험을 통해 여전히 네팔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네팔 선교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유의 한다면 지속적인 선교팀 파송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① 현지교회 발굴 및 거점교회 선정

예배와 말씀사역, 어린이 사역 등은 전도활동이 아닌 교회 안에서, 현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 지난 단기 선교를 통해 알게 된 현지교회와의 연합
- 새로운 현지교회 발굴
- 각 지역에 거점 교회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선교팀 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② 현지 교회와 연합하는 사역(프로그램 준비)

현지 교회와 사역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성도들의 영적 부흥

- 출발 전 현지교회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고, 준비하여 가면 현지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금번 저희 사역의 경우,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 나눔을 통해 성도들이 많이 위로 받고 도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 준비된 어린이 사역은, 현재 학교를 방문하여 전도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여 더 많은 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 현지 목사님의 인도아래, 심방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였고 큰 위로와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교회 내 새신자 초청

- 실제 이번 사역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한지 얼마 안된 새 신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방전도와 축호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선교팀 방문 동안 교회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네팔 선교의 경우, 기존의 선교 준비 방식에 더하여, 현지 교회에 실정에 맞추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선교위원회에 미리 보고하고, 준비해 간다면 좋을
듯합니다.

③ 참고사항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유의 할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현지 교회와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 현지 교회가 어떠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또한 선교팀이 무엇을 준비해 갈 수 있
는지에 대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어에 능통한 사역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현지 사역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 선교팀이 자칫 현지 상황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하는 경우 체포나 추방당할 수 있
겠으나 더 나아가서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나 목사, 선교사들의 장기적인
사역에 피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팀의 독자적 행동 보
다는 사전 의견 조율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사역자에 대한 판단

: 네팔인이 네팔에서 목사가 되는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신학교를 졸업 후, 목사 안
수를 받아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교회가 이
루어지고, 여전히 그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면 성
도들의 인정에 따라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 교회가 성장하고 또 신실한 사역
자가 나타났을 때, 성도들의 동의와 인정아래 기존의 목사가 그를 목사로 인정하
면 목사가 됩니다.

즉,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복음을 알리
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의 동의와 인정에 따라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시각으로 현지 사역자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
습니다.

어찌보면 현지 교회들은 50년의 역사도 안된 기독교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교회와 선교팀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교회건축 지원 부분

: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네팔 또한 지대(땅값)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땅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팔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나 개인이 지원을 할 경우 땅을 구입하여 주는 것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